

국내 넘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강진 작두콩차' 인기

미국·중국 등 세계시장 선점 · 호흡기 건강 좋아

아마존 입점...특산품 우수성 알릴 계기 마련해

강진군 (농)도두팜 주식회사(대표 홍여신)에서 생산되는 작두콩차가 국내를 넘어 미국과 중국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농)도두팜주식회사에서 개발한 '마법의 블랙 작두콩차'는 올해 3월에만 2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을 중국에 선

적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정식 입점해 전 세계에 강진산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등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시장을 개척한 (농)도두팜주식회사의 해외시장 진출사례는 농업

의 판로 확대를 위한 롤모델이 되고 있다.

(농)도두팜주식회사의 작두콩차는 농약 대신 미생물을 활용하는 EM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인증과 GAP인증까지 획득했다. EM농법은 천연 재료를 발효시켜 그 발효액을 물에 희석해 땅에 주입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상품의 맛과 질을 한 단계 높여준다.

홍여신 대표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이지만 강진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해외시장 선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큰 도움이 됐다"며

유통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작두콩이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된 작두콩차는 초록민음직거래센터(061-433-8844) 및 강진초록민음 쇼핑몰(<http://gangjin.center>)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한편, 강진군은 온라인 쇼핑몰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를 통해 유통망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판



축 기획전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농특산물 유통기반을 탄탄하게 조성

해 나가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2년 연속 수상 쾌거

지역경제 부문...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완도군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경제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발전 도모를 위해 창의적인 시책 개발 유도와 우수 시책을 공유·확산

시키고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16회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안전 관리·지역 일자리 창출·문화관광 등 10개 분야의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93개 지자체에서 235개 사례를 응모하여 경합을 펼쳤다.

완도군은 청정 해양 환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마련, 청정바다 보전 운동 전개, 해양환경관리팀 운영, 이동식 페스티벌로 감용기 운영,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획득, 해양치유산업 육성, 해외 시장개척 등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정바다 완도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대통령상에 이어 올해도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5만여 군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며 "앞으로 군 역할 사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 '해양환경관리팀' 구성·운영으로 지역 경제 분야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취소됐다.

완도=김광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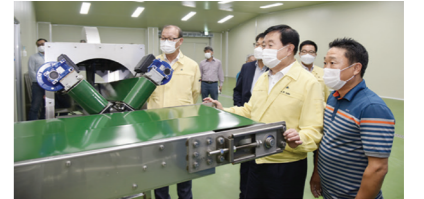
이동진 진도군수, 기업 관계자 격려

군내 농공단지 방문 · 김치 등 식품 제조업체 찾아

이동진 진도군수가 지난 24일 군내 농공단지 방문, 제조업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진도군의 관문인 군내면 녹진리에 소재한 군내 농공단지는 김치 공장 등 식품 업체 입주 시작되고 있는 농수산식품 제조 전문단지이다.

이동진 군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최일선 경제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를 표했다.



식품 제조 특성상 청결 위생을 위해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의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입주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청사 신축 공정을 50% 돌파 순조롭게 추진

내달 초 골조공사 완료예정...명현관 군수 현장 점검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가 전체 골조공사 완료를 앞두고, 공정을 50% 돌파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신청사는 현재 6층까지 골조공사 완료 후 마지막 1개층과 옥탑층만 남아있으며, 군의회 청사는 골조공사 완료 후 외부마감공사를 위한 가설비해체를 완료한 상태이다. 10월 초 전체 골조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54%를 나타내고 있다. 내부에서는 마감벽체 및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어 내년 6월 준공은 차질없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축 중인 해남군 신청사는 연면적 1만 8601㎡로 군 청사는 7층, 군 의회 청사는 5층으로 신축된다. 지상과 지하에는 총 1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명현관 해남군수는 23일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

항을 점검했다.

명군수는 "올해 잦은 강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계획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어 골조공사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견실한 시공은 물론 사업 마무리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골조공사 완료와 함께 예정된 상량식 등 행사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생략하고, 추후 명절을 앞둔 현장점검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청사신축과 동시에 추진 중인 해남읍성 정비 및 군민광장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청사 골조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로 일시 중지된 해남읍성 정비는 연말부터 구간별로 정비를 재개하며, 군민광장 조성사업도 올해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청사 이전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공사 완료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기로 견실시공과 더불어 청사 운영·관리 및 청사이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군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조사료경영체협의회' 임원 13개소 대표 간담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조사료경영체협의회의 임원 13개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정중순 군수는 조사료경영체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지역 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나눴다.

장흥군 조사료경영체는 70개소이며 조사료 재배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된 전문단지는 5개소로 작업구역별 23개소가 지정돼 있다.

일반단지는 47개소로 각 읍면 조사료 생산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동계 4,600ha, 하계 700ha로 총 5,300ha이며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103천톤의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군포 사일리지 판매로 경종농가 소득은 120억원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